

쌍용건설(주) 퇴계원-진접간 도로공사 현장 도로공사 안전관리의 교과서

취재 · 사진 |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는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은 신도시 중 하나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적한 전원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교통문제다.

진접지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구간은 상습 지·정체구간으로 악명 높다. 진접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도로는 이를 감당키 어려운 4차로에 불과한 것. 그래서 지역민들은 늘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고생도 올해면 끝날 듯하다. 퇴계원-진접간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맡고 있는 쌍용건설이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수한 안전관리로 대·내외에 이름까지 떨치고 있어 도로의 안전성은 물론 공정 전반이 신뢰를 얻고 있다. 안전으로 미래 진접을 열어갈 길을 만들고 있는 쌍용건설(주) 퇴계원-진접간 도로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다.





안전의 선두에는 현장소장이 있다

안전현장의 필수 요건인 '책임자의 높은 안전의식'은 이곳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곳 책임자인 양철규 소장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본인이 직접 산재예방시설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주요 성과물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보강토옹벽 작업 시 단부 추락방지를 위한 SLIP형 안전난간망'이 있다. 이것은 보강토 작업 시 추락방지망이 부착된 횡방향 난간대를 반복적으로 위로 밀어 올려 고정시키는 시설이다. 즉 보강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난간을 해체함에 따라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키 위한 시설.

또 로울러 장비에 부착하는 '후방 물체인식 센서'가 있다. 이는 후진시 로울러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근로자가 있을 경우 '뽀뽀' 하는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장치다. 경고음이 들리면 운전자가 후진을 멈추게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협착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구조물과 비계사이에 설치하는 '서랍식 추락방지 시설'이 있다. 구조물 공사를 하다보면 구조물 외곽선과 비계사이에 기푸집설치를 위한 작업 공간이 꼭 필요하다. 현대 이 공간을 만들 경우 철근과 비계사이에 개구부가 발생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서랍식 추락방지 시설'은 기존 비계의 단경간 부재 외측파이프에 내측 파이프를 끼워 넣은 다음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파이프를 빼어 추락방지망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즉 작업을 할 때는 파이프를 안으로 넣어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평시에는 파이프를 밖으로 빼어 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인 셈.

이들 외에도 양 소장은 주민들이 작업장에 들어와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키 위한 '작업장 입구 외부인 출입금지 안전 커튼' 등도 개발했다.

올해 열린 제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양 소장은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불안전한 행동을 막아라

이곳 현장은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경광등을 부착한 다수의 안전순찰차를 통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을 불안정하게 관리한 작업자나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수칙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여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 불량 공·도구나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작업장을 발견했을 시에는 해당 공·도구와 작업장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작업을 중지토록 한 후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출신 국가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기록된 안전용어 100단어집을 주어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언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마음에 새긴 감성안전

형식적이 아닌 마음으로 펼치는 감성안전도 이곳 현장이 자랑하는 안전활동이다. 이러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근로자들을 부르는 호칭. 우리나라 어느 건설현장을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곳에선 들리지 않는다. 대신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아저씨'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을 일용직 인부가 아닌 내 가족처럼 여기고, 또 같은 건설전문가로서 대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곳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모에는 이름과 함께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새겨져 있다.

또 이곳은 신규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1개월차 근로자의 안전모 하단에는 적색띠, 2개월차는 노랑색띠, 3개월차는 녹색띠를 부착해 신규 근로자임을 알리고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각별한 관심을 쏟도록 하고 있다.

이재식 안전차장은 "함께 하는 안전, 배려가 있는 안전이 현장에 견고히 뿌리를 내릴 때 무재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전은 모든 작업의 시작이자 끝”

항상 근로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은 모든 작업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시작된 사업은 결국 사고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직원들이 모든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항상 안전을 먼저 떠올릴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피드백을 통한 점검지적활동 등 조직화된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 철규 현장소장

